



개원 2주년 기념사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연구원의 개원 2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공기술연구회 박병권 이사장님과 정인복 감사님 그리고 인근 출연기관장님들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5월 신록의 계절에 날씨도 화창한 오늘, 여러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직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연구원의 개원 2주년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통합기관으로서 우리 연구원의 출범을 알리는 개원기념 행사를 한 것이 바로 잊그제 같은 데 벌써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다고 느끼는 것은 아마도 지난 2년 동안의 기간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기관장이하 직원 모두가 밤을 낮 삼아 머리와 가슴으로 고민하고, 팔로 뛰어 온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돌아켜 보면, 지난 2년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통합 1년차에는 통합기관을 형성하고 기반을 닦는 데 모두가 힘을 썼습니다. 지난해 예는 그 기반을 토대로 우리 연구원의 제반 연구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미래 지향적인 체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 2년을 스스로 평가해 볼 때, 저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열심히 일 했으며, 또 많은 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해 연구회 기관평가에서 우리 연구원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내·외 귀빈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이 오늘의 위치에 이를 수 있었던 데에는 국무조정실과 연구회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은 물론, 각 계 전문가 분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룩한 주요 업무성과를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통합후 기존 양기관 연구사업체계를 대대적으로 통합·조정하여,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유통체계와 슈퍼그리드 인프라체계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6개 담당기능별로 재편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 유사한 업무는 피감하게 재편하고, 과제간 연계성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비핵심사업의 아웃소싱을 통해 연구사업 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하고 고도화 하였습니다.

둘째, 또한, 과거 DB 정보유통 중심에서 벗어나, 심층 분석정보에 대한 서비스체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정보와 산업기술정보가 상호 연계되는 R&BD 토털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과 산업이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세계 4위 규모의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을 완료하여 우리나라 첨단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그리드 프로젝트 등 차세대 국가연구개발 체계를 선도

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미래전략형 응용연구의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해, 미래 정보수요에 적절한 부응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사업추진기반을 확대·정비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이후의 신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해 슈퍼컴퓨팅 사업과 연계한 바이오 인포매틱스 사업 및 정보분석 사업과 연계한 나노 및 부품소재 정보사업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다섯째, 기관운영부문에 있어서도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통합·정비하고, 노사관계를 새롭게 정착하는 등 선진형 기관운영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천에하는 KISTI 직원 여러분 !

지난 두 해 동안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의 같이 통합기관의 형성과 발전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통합기관이 융화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기 일쑤인데 반해, 우리는 원원전략으로 모두를 수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지난 2년이 간의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지식정보인프라분야의 최고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난 2년간의 성과에 만족하기에는 아직도 커다란 시대적 사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지식과 정보에 의한 변화의 시대입니다.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유통이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고성능의 컴퓨터가 연구개발 활동에 응용되고 있으며, 초고속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초월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KISTI 가족 여러분 !

이제 국내 최고의 지위에 만족하지 마시고, 선진국들과 당당히 견줄 수 있는 세계 정상으로 내달려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든 매우 절실한 과제입니다. 미래 연구개발을 선도하며 앞으로 펼쳐질 e-R&D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현대 과학기술은 실험실에서 사람의 손에 의한 끊임없는 실험과 실패의 경험으로 얻어지는 소위 Off-Line 식의 R&D 시대가 아니라, 사이버 환경에서 초대형 연산기반의 고성능 장비를 비롯한 정보, 네트워크, 실험장비 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활용되는 High performance R&D의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 대외적 연구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와 선도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첨단 연구개발 환경의 구현과 지원체계의 구축과 함께, 사람의 머리와 손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고급분석정보의 생산과 제공, 국가적 정보자원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들도 여전히 중요하게 취급되어 유지·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분발과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

지난해 개원 1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연구원을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선진정보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아직은 미치지 못하지만, 자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연구원의 개원 2주년을 축하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직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차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저의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2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조영화